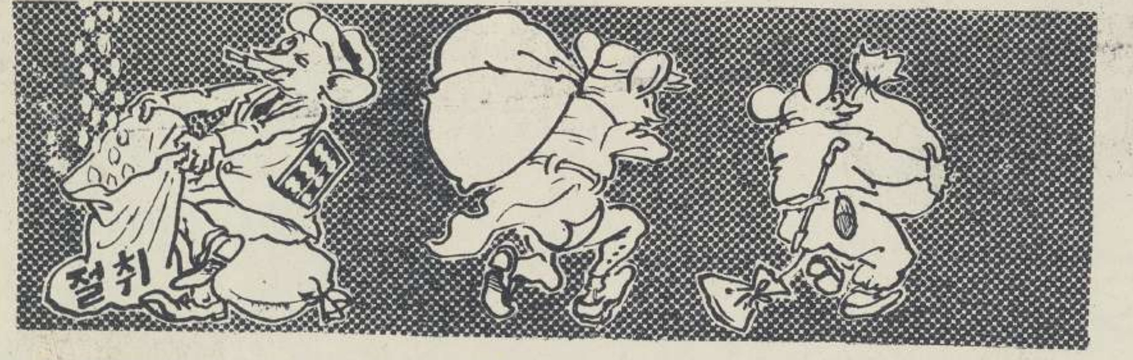
3 - AUG - 9
Copy 1960

시사만화잡지

활살

№4 (53) 1955.4

「절약」?



일부 식당관리 일꾼들은 백반의 정량을 소기여 손님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면서 식량을 뒤로 빼 돌려 사복을 채우고있다

택인균 그림

땅의 주인

안변 중앙협동조합에서 열린 내각결정 12호 전달보고회가 끝났을때의 일이였다 50세 가량의 농민이 내게로 왔다

『평양에서 오신 기자 동무라시죠? 다른게 아니구 과거의 나와 같이 협동조합에 불안을느끼는 사람, 아직도 당과 정부에서 농민에게 토지를 준데 대해서 고마운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은 결국 땅의 주인이 된 자랑을 오늘날까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알려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는 혼자 소리 내여 웃고는 자기의 지낸 이야기를 아주 구성지게 말했다

☆ ☆

—우리 조합은 재작년 11월 중순 열두 집으로 조직됐습니다 모두 빈농민인데다 아홉 집이 후방가족이 였구 모다 식량이 넉넉하지못한 집들이였죠. 사실 나는 조합에 대해서 딱이 자신이 없었지만. 워낙 이 해 농사를 실패하여 열두 집 중에서도 식량이 제일 급박한 만큼. 조합의 힘으로 식량 걱정이나 덜까 하는. 말하자면 국가 대여곡을 얻는데두 조합이 유리하리라는 생각으로 맨 나중에야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비방하는 사람 특히 우리 동네서 단 하나뿐인 최령감이라는 부농의 말에 귀를 더 기우렸지요.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이야 뻔하죠. 내 농사라야 두엄 한 줌이라두 더 주구 풀 한 포기라두 더 뽑아 주구. 또 빈 주먹만 가진 사람 끼리 무슨 수를 낼수 있겠냐는둥. 더군다나 조합에서는 온통 선진영농법만 쓸테니 미두 하는거나 마찬가지로 투기적이라는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맹추는 그런걸 그냥 믿는데서 조합 일에 잘 나가지두 않구 딴 수작으로 돈량이라두 벌려구만 했습니다. 혹시 나간다 해두 작업반장의 눈만 피 할수 있으면 일을 건숭 건숭 해 치워 버렸지요.

☆ ☆

그러나 다른조합원들은 개인 농사 적 보다두 더 부즈런 하구. 단체루 하니까 무슨 조화 속인지 비조합원들의 배나 일을 해 치웁니다. 물론 밭 곡식은 광조파니. 십자형이니. 그러구 논은 륙상모에다 병목식 소주밀식을 했으니. 사실 난 도중에 조합을 나올 수도 없구 불안해 못 견디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해 농사를 끝내구 분배를 받을 때 난 정말 놀랐습니다. 놀랬단것 보다 정신이 앗질했다면 그만이죠. 어느 조합원이나 나 보다 배 이상의 분배를 받었단 말요. 지금 생각하면 이 때 『이 조합을 나가면 그만이지』 내 봉고집에 이런 생각을 안 한것이 첫만 다행이였죠, 무엇 보다도 완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던 선진영농법을 전적으로 도입한 협동조합이 제1 다수확을 한거라든지, 농사 일도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것이 얼마나 우월한가가 나를 옳게 깨처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심술을 내는것 보다 나의 어리석음을 욕했구 특히 나를 꼬이려구 하던 그 부농 령감해기를 욕 했거던요. 허긴 욕하면 뭘 합니까. 첫째 내 잘못인걸요. 동네 사람들이 조합에 망라될수록 부농령감은 사람을 맘대루 쓰구 부릴 수 없으니까 비방할것은 사실 아닙니까. 결국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난 날의 땅의 주인이였다면 오늘과 같은 옳은 세상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땅의 주인이란걸 명심해야죠. 땅의 주인답게 땅에서 다수확을 내구 생활을 높이자면 협동조합뿐이란걸 뼈저리게 알었단거던요.. 이런걸 락후한 농민들에게 널리 알려 달라는것이 내 소원이란 말입니다.

— 석 봉 —

건설장의 급보

평남도 14건설 트레스트 제1사업소 소장으로 배치되였던 박인득은 왜 국가에 막대한 해를 주었는가?

생활에서 극히 부화하며 청부업자인 그가 미장에 기능이 있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소장이된 후 박인득은 8명의 청부업자를 다려다 사업소 합숙에서 공밥을 먹여가면서 호화로운 미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재산을 탐오할 엉큼한 음모부터 시작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 부장 자리는 물론 백여명의 기능공까지를 전달꾼으로 교체하여 한 왕국을 꾸미려 했다. 이로 말미아마 사업소 내부는 혼란상태에 빠져 공사의 진도를 뒷 거름질 치게 하였다.

소장자리에 앉은지 2개월만인 3월3일 로동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의하여 박인득의 정체는 곧 폭로 되였다.

『도대체 간부 배치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가? 관리국 간부지도원은 이에 대답할 대신 『그는 기술자인데!』하고 그대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장 필 순

한 강토의 남북농촌이 이렇게 다름을 어찌 보고만 있을수있으랴!

최한진 그림

금번 공화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1955년 농산물 예약 수매제는 농민들의 증산열의를 고무하며 공업과 농업을 긴밀히 결합시킴으로써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농민들을 협동화의 길로 인도 하는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봄 아가씨! 잠간만

안창수 그림 —동무 같이 게우름뱅이는 난 싫어요

5월의 깃발을

곳—어느 제강소에서 인물—철화. 만쇠. 영옥

철화—우리의 힘은 한없이 끓어 새해의 설날 아침 올해의 계획을 초과완수 하겠다고 수령께 엄숙히 맹세를 드리였다!

영옥—이제 5•1절을 맞아 우리는 더욱 벅찬 투쟁을 전개 한다.

철화—싱싱히 푸른 조국의 대지 위에 가지 가지의 승리의 꽃수를 놓으며

만쇠—허나 올해는 3개년 계획 실행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해!

셋 모다—『1955년의 큰 고개를 거운차게 넘어서자!』 웨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철화—우리는 전선에서 가증스런 원쑤놈들에게 죽엄을 준 병사들!

영옥—지하 공장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한 로동자들!

만쇠—폭격과 함포의 포탄속에서 다수확을 걷운 농민

셋 모다—전세계 근로자들의 손길은 항상 우리에게 뻐치며 이미 지난해의 계획과제를 넘쳐 실행한 경험으로 다졌거니!

영옥—올해의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3개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고리!

셋 모다—그렇다 우리나라의 장래 공업화와 인민 생활의 급격한 향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보장하는 거대한 전진!

만쇠—생산 혁신자들의 거센 대렬은 나날이 늘어가고 증산투쟁의 생산도표는 붉은 상승선으로 가득찼어라

영옥—용광로에서 흐르는 쇳물과 폭포처럼 쏟아질 비료! 그리고 씨뿌린 5월의 전원에서 협동생활의 노래는 승리자들의 우렁찬 합창 이거늘!

철화—5•1절! 이날 우리는 오색의 부랑카트 나부끼는 광장으로 물결쳐 나가 승리의 개가로써 수령을 뫼오리!

셋 모다—노도와 같은 근로 대중의 진군앞에 원자광들의 발악인들 겁낼 사람 아무도 없거니, 평화와 건설의 이 진군 앞에 온갖 너부레기는 휩쓸어지고 5월의 깃발은 가없는 하늘 높이 휘날리리라! (원 철)

평양시 건설장의 한 모퉁이에서

—여보, 사람 치겠소 시공을 완전히 하시요

—시공은 잘 되였으니 딴소리 말구 벽돌이나 다시 구어서 완전품으로 가저 오구려

송용남 그림

—이것, 어데서 제작한 석고상이오?

—해주 세멘트 공장의 제작 품이라오

우리의 아름다운 민주수도 평양의 복구작업에서 시민들은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구어지지 않은 벽돌을 보내여 축조 도중에 무너지며 또한 세멘트의 포장을 불완전하게 하여 빗바람에 막대한 랑비를 초래하는 등 아직도 해독적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려먹는 순번

—손을 다쳤으니 재까지 걸어갈 수가 있나?

—학습이 잔뜩 밀렸는데 나갈 수가 있나?

—청첩장을 받고서야 모른척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서 검열 지도 사업은 지시문으로 바뀌었다

최영근 그림

양도 받은 『합숙』

황북도 지방산업 관리부 산하 일부 공장들에서는 생산문화와 춘기 방역 대책은 웨치면서 합숙식당은 불결하게 해 두고 있다

돼지——독방에서 편안히 숙박하려 했드니 맹꽁이 녀석이 먼저 왔군!

맹꽁이—어서 들어 오시요, 동숙하면 답답지 않아 더좋지요

리영춘 그림

남의 불에 게 잡으려는 사람

락후한 기업소 해주세멘트공장.

2월 생산계획 수행 37%.

지배인 서완성 동무는 3월7일부 로동신문을 보다가 팔의 힘이 탁 풀려 신문을 스르르 떨러 트리였다—『설령 3월에 100%를 완수한다해도—1월의 20,1%를 합해 1•4분기의 평균을 내면 51,3%이니 락후한 기업소의 불명예에서 빠져나갈 도리는 없다. 대체 무슨까닭일까?』 그의 머리 속에는 기계고장으로 휴업한 시간이 2월만해도 318시간45분간이라는 숫자가 짓누른다.

『오늘 이 시각에도 고장난 기계나 없는지?』 지배인 서완성 동무는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지배인실을 나서는 길로 기사장실에 들려 기사장을 재촉해 가지고 현장으로 갔다. 처음들린 직장에 버려진 광경

—고장난 기계를 인계 받을 수 없소 고장난걸 고쳐서 인계하는 습관을 가지란 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드니 동무는 기계수리를 얼마나 할줄알우? 인수 않겠으면 그만두오,

로동자들의 옥신 각신하는 말을 들은체 만체 지배인은 소성제호에로 왔다. 소성로는 쌓은지 오래지 않았는데 벌써 내화련와가 탈락되여 사용하지 못하게되여 있었다.

버려진 사고가 모두 기술이부족한데서 오는 결과임을 알때 기사장은 마음이 괴로웠다, 기술전습을 아무리 시키려 해도 지배인은 이제까지 조건을 주지않았던 것이다.

『지배인동무! 모다가 기능공이 너무 부족한탓입니다. 650명에 대한 기능공 양성계획을 적극 추진합시다.』

기사장의 말이 떨어지자 지배인은 얼굴을 잔뜩 찌프리드니 『갑시다』하며 앞서 나갔다.

『기사장동무! 어느 하가에 기능자 양성을 하고있겠수. 다른 공장에 있는기능공을 어떤수단을 써서라도 빼 오잔말이요 그래서 우리 공장의 생산이 보장되면 국가적 견지로 보아선 피장 파장 이란 말요.』

지배인은 일찌기 다른공장에서 기능공을 대려온 일에 맛을 보아서 걸핏하면 『또 빼오면 되지』하는 그의 뱃장만 더 커 졌었다.

지배인은 책상앞에 앉자마자 관리국장에게 전보문을 작성 하였다.

『소성로 내화련와 요적공 8급공 1명을 속히 알선해 주시요』 그리고는 다시 기사장에게 다짐을 하였다.

『결과를 기다릴것없이 지금 곧 빼 오는 공작을 시작합시다』 장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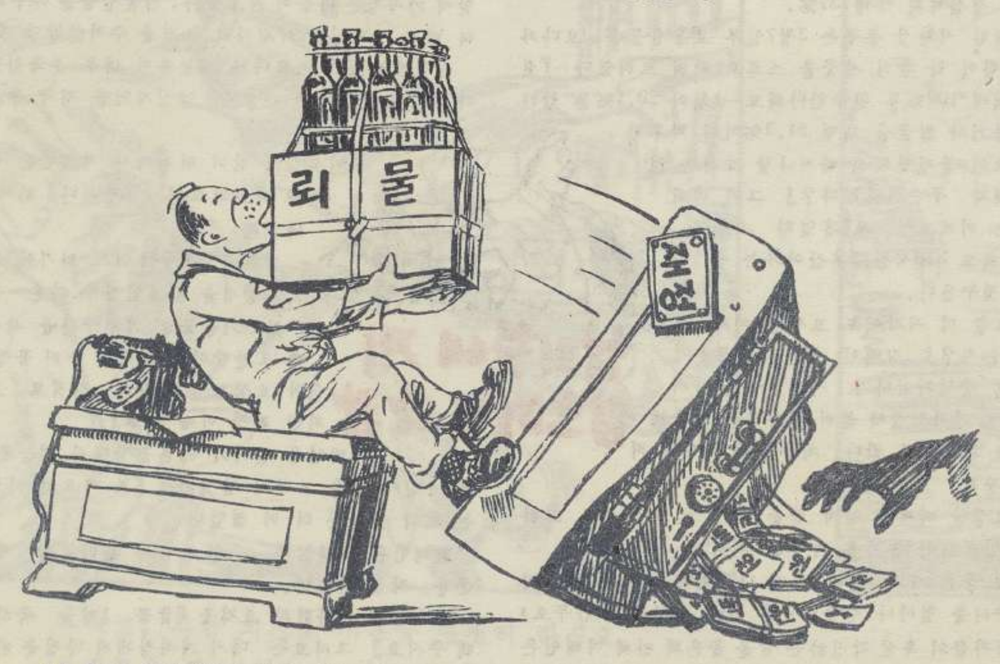
죄 없는 「죄」

회천광산 지배인을 비롯한 지도일군들은 자기들이 행정시간에 음주한 것을 김기일 동무가 비판하였다고 하여 그를 영터리없는 「죄명」을 씌워 해임시켰다

—비판은 할대로 해라

—됐다! 그만하면 철직 감이다 박승히 그림

공것이라면 비상이라도 먹는다



죄나 작으나 국가 재산을 탁취, 횡령, 랑비하는 현상들은 모다 국가 앞에 큰 범죄로 된다 그런데 일부 재정 일꾼들은 뢰물을 받는 맛으로 국가의 리익에 배치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감행 하고 있다

송용남 그림

고무줄 통계

『당신은 관청식 사업작풍과 탐욕적 공명주의자요. 그러니 국가시책의 정확한 집행과 정당한 사업이 다리를 절게한단말요』

봉산군 인민위의 농산부장은 농민들의 입에서 쫑어져 나오는 비판에 목에 핏줄을 일켜 세웠다

『누가 나를……』

그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거품을 물었다. 책상위에서 철필대 하나로 군내 전체 농민들이 해놓은 풀베기 보다 더 많이 베고 맥류도 가을내 파종한 숫자보다 엄청나게도 258 정보나 더 파종하였으니 『호통』도 칠만한 위인

이런 위인이 린산군 금천군 장풍군 에도 들을 차리고 있으니 황북도 인민위의 농산부 통계지도원은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통계만 붓잡고 씨름판이 벌려질수 밖에….

머지않아 류안비료가 쏟아진다

어젯날의 로동자들이 아니다

멀지않아 눈덩이와 같은 류안비료가 쏟아진다!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은 올해의 계획에 예견된 3만2천톤의 비료를 5·1절전으로 앞당겨 생산 하기 위해 지금 처렬한 투쟁을 전개한다.

류안비료는 이 나라 농민들의 손에 이골이 난 비료!

『류안비료가 빨리 나왔으면!』

어찌 이말이 로동자들의 마음을 따리지 않을수 있으랴

전해직장—여기는 변류직장에서 보내는 직류전기가 셋트에 담긴 물 가운데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류안비료 생산에서 첫 단계인 공장이다. 눈이 아물거리도록 셋트는 쭉 렬을 지어있다.

그러나 전쟁기간중 혹심하게 파괴 되고 오래 생산이 멎어 셋트의 속은 돌 처럼 굳어졌다.

무연탄 불을 피우고 여덟사람이 하루 겨우 4조의 셋트를 녹이 였다 또 직류 전기가 통하는 동판이 전부 녹이 쓸어 전기의 접촉이 안되였다. 그래 빼—빠로 하루 한사람이 3조를 닦았다. 특히 접종 류산 복구공사에서는 스텐레스 용접봉이 없어 작업을 쉬게 되였다.

『도저히 5·1절까지 비료생산이 불가능 하다…—

이때 박금룡이를 비롯한 일부 락후 분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나섰다.

그러나 오늘의 로동자들은 과거의 로동자들이 아니다. 경험과 손 재간도 있거니와 선진지식과 화학작용을 응용한다.

무연탄 대신 수소를 리용하여 하루 한 사람이 8조를 녹이고 빼—빠 대신 류산과 전기를 리용하여 하루 한 사람이 30조를 닦았다.

네개의 까스탕크

네개의 까스탕크가 렬을 지어있다. 1호탕크는 배불뚝이 처럼 숭하게 조립되고 2호탕크는 좀 나으나 역시 울룩불룩하다. 3호탕크는 눈여겨 봐야 숭한것이 눈에 띄이고 4호탕크는 제법 이쁘장하고 반듯이 조립되였다

『참! 수수께끼 같애요 왜? 이 탕크들이 차례 차례 모양이 이뻐졌단말예요』

『그럴것 아뇨? 로동자들의 경험과 기술의 발전을 말해주는 표본이 바로 이거란 말요』

『소박한 로동자들의 마음과 솜씨! 놀라운 위훈!

이 까스탕크 조립에 있어서 수많은 로력 혁신자들이 나왔으며 특히 리운호동무는 36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며 연구한 결과 훌륭한 스텐레스 용접봉을 만들었다.

내부원천을 동원하여

류산직장—여기는 유화광석을 연소하여 류산액체를 만드는 공장이다.

행정기술협의회와 제호 생산 협의회에서는 내부원천을 최고도로 동원할것을 토의했다.

『저걸 복구한다니 무얼 가지고 한단말요? 제히 5·1절까지 비료를 낸다고 한것이 헛소리가 될것같소…』

박금룡이와 같은 락후분자인 김봉구는 이마를 붓잡고 주저 앉았다.

전체 로동자들은 각종 유휴자재를 리용하며 이미 못쓰게 된 기계를 다시 재생 시키는 등으로 탑을 복구하였다. 그들은 또한 모든 애로와 난관을 광범한 창의고안운동으로 타개 하였다. 민창호 동무는 탑축 조탁업에서 위인치 장치를 함으로써 1개월에 6백여공수나 로력을 절약했다.

쏘련기사 닐리시크 동무

전해직장과 질소직장에서 보내오는 수소와 질소를 1천5백마력 압축기로 압력 7백기압으로 하여 암모니야를 만드는 합성직장! 이 공장은 비료공장 전체에 있어 심장부와 같다.

쏘련 기사들은 기름이 묻은 작업복을입고 우리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과 함께 기계배치. 각종배관. 기계조립을 하느라고 얼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닐리시크동무는 1,500마력 써틴다 조립에 착수했다 그는 모든일에 있어 정확하고 정밀하다. 그리고 그는 로동보호와 안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돌리였다.

『수압시험을 합시다』

『닐리시크동무!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술자와 로동자들은 빨리 생산을 할 의욕에 이렇게 주장했다.

『조립했다가 실패하면 어쩝니까?』

그리하여 시험한 결과 써틴다는 전시에 소개하는 도중 밑바닥에 금이 난것이 발견되였다.

『보시요! 이것은 산 교훈이고 경험입니다』

그리고는 압축기의 사이가 너무 가깝게 조립된것을 위험성이 없도록 거리를 더 넓게 조립 하게끔 했다.

멀리 모스크바에서 온 닐리시크! 그는 오늘도 여전히 얼굴에 땀을 줄세워 흘리며 높은 철재의 층층다리를 오르내리며 일하고 있다.

류안비료가 쏟아진다!

류안직장! 여기는 비료가 나오는 마지막 단계다. 합성직장에서 보내온 암모니야와 류산직장에서 보내온 류산을 포화기에 넣어 화학반응을 시켜 류안비료를 만든다. 포화기 5대와 압축기1대를 이미 복구했다.

비료가 쏟아질 공장안 넓은 땅바닥도 아스팔트로 만들었다. 박금룡이와 김봉구와 같은 락후한 축들은 처음에 안된다고 머리를붓잡고 주저앉았으나 이제 비료가 나오면 두번 머리를 붓잡고 놀라 자빠질것이다.

『류안비료가 나왔으면…』

농민들의말에 로동자들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료의 산으로 대답하려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로농동맹의 열매인가!

5·1절! 이날 마치와 낫을들고 웨치는 만세 소리에 땅이 뒤흔들리고 이날부터 흰눈덩이와 같은 류안비료의 산은 쌓이고 쌓여 3만2천톤! 계속 9만톤의 비료는 쏟아질 것이다! —루 달—

농민들의 담화

『그렇게 파괴된 공장을 벌써 복구하여 비료가 나온다니 로동자들의 열의가 대단해!』

『남반부에선 비료가 생산되기는 커녕 옥로가 황무지로 변하고 있어… 미국 놈들은 한가마니에 원가 410—700환 정도인 미국 비료를 농민들에게 그것도 때늦은 때 4,000환으로 강매되며 게다가 벌떼에 쉬파리처럼 간상배들이 달려 붙어 아이 보다 배꼽이 더 큰 비료값에 농민들은 입을 딱 벌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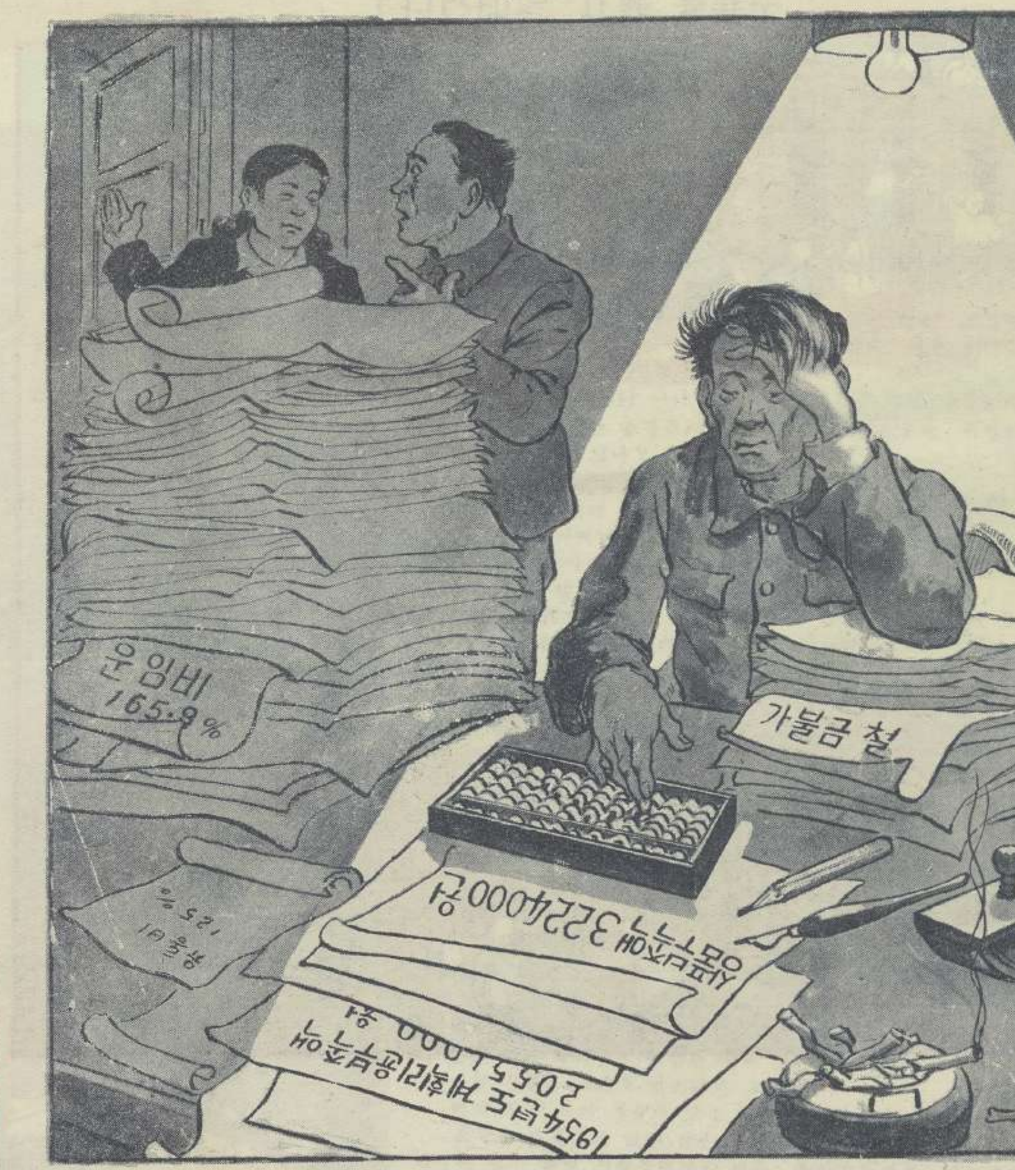
『그럼의 떡이군! 비료를 보고도 논밭에 못내니』

『그러니까 미국놈은 등치고 간 뽑아 먹는놈이 아닌가』

『우리는 붓석 힘 더 냅세!』

『그래! 이 넓은 벌이 다 풍년이 깃들게 하여 쌀을 공장 지대와 도시에 팡팡 보냅세!』

먼저 먹은 후 답답



—소장동무, 함흥각에서 외상 값을 받으려 왔습니다 저, 저… 안계신다고 그래주오

최한진 그림

함흥시 상업관리소에서는 무원칙하게 재정규률을 위반하고 있다 판매에서 수입과 지출이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김승배 소장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출하여 탕진하여 버렸다

얼어 붙어 6개월 떠돌아 6개월

최영근 그림

—얘! 어름위로 다니는 어선이다 빨리 도망치자
—아니야, 어름위에 붙은 배야, 녹을때 까지는 안심해도 좋아

—어떻게 된 셈이요?
—천리 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일세

신의주 고무공장 업무부 책임자, 리균형 동무는 고화 12,000족을 2중발송하여 6개월간이나 포화물이 공화국 전 지역을 유람하게 하는 기괴한 사실을 발생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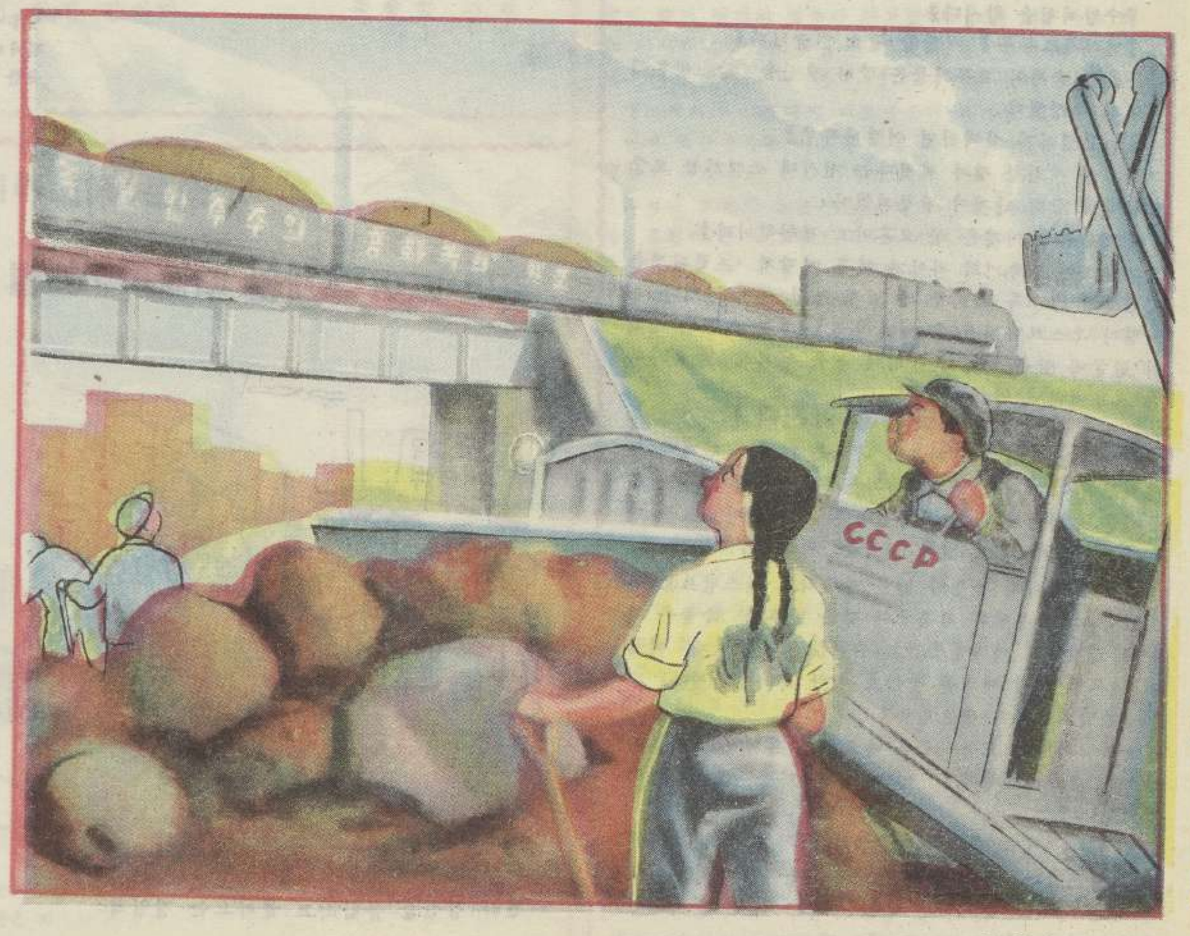
서호 수산사업소 지배인은 항상 배가없어서 고기를 잡지못한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실지는 그의 무계획성으로 말미아마 프로페라가 없어서 배들이 6개월동안 웅상 항구에서 얼어 붙어 있게 하였다

구름을 뚫고 일떠선다!

우리 남반부를 식민지와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는미제는 남조선의 모든 시설을 파괴하며 북반부에서 찬란히 복구되는 평화와 행복의 위력을 파괴하려고 전쟁 도발에 발광하고 있으나 3천만 조선 인민은 조금도 용허하지 않는다

조선의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하여 쏘련을 위시한 형제 국가들은 각방으로 사심없는 원조를 배풀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는 남반부의 자연부원, 문화자재, 산업시설을 략탈하기에만 광분하며 인민들을 기아와 죽엄에로 몰아넣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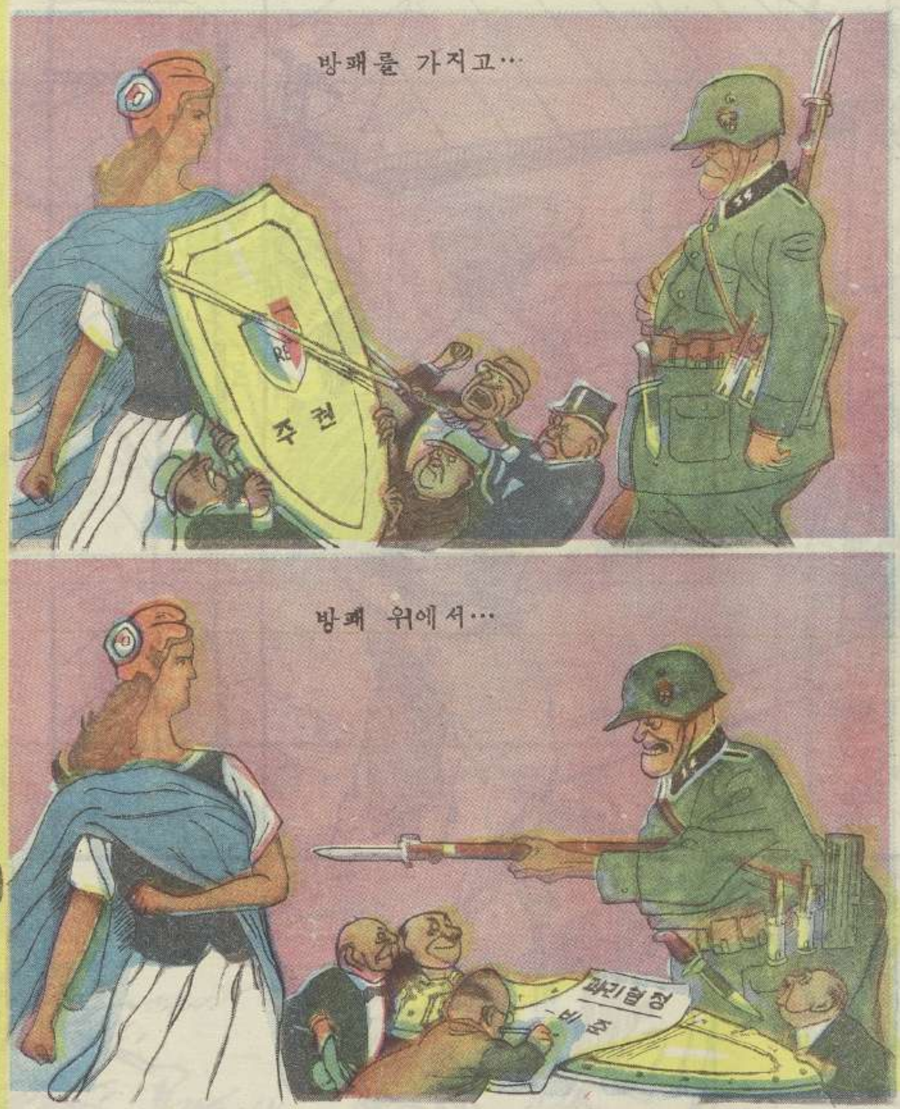
의로운 심장들은 달려온다!



안창수 그림

국제유모아

화가, 유•간화 그림
쏘련 풍자 만화잡지 크로꼬질 1955, 2호에서 전재



나쁜 신문

(동남 아세아의 어느 곳에서)

—여보게 쎄이드 자네는 공산주의가 위험하다고 생각 하지 않나?

—오! 아호마드 나의 생활은 항상 정치에서 멀리 있었네! 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극히 적게알고 있네, 나는 공산주의가 누구에게 있어서 위험 한지 알지 못하네.

—그래 가령 자네나 나나 우리와 같은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네는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무엇으로써 위협하고 있는지 말 할수 있나?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것을 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생각 하건대 쌀이 좀더 많아지고 질병은 좀더 적어지며 내 아들이 학교에 다닐것이고 딸은 방적공장에서 일주야에 13시간 동안 시달리지 않게 되리라고 상상한다는 것을 말 할 수 있을 뿐이네

—좋다 쎄이드 자네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표현 하지 못하네 이것에 대하여 미국 신문 "포스트 지스빻" 지가 어떻게 론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 보게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네; "첫째로 공산주의는 약소 국가들의 10억 인구들의 많은 곤난들에 대해서 대답을 주며 그들의 생활 필수품을 충당 시킬 약속을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둘째로는 공산주의는 이 나라들에서 계속되는 질병과 빈궁과 무식들 속에서 유일하고 명백한 출로를 제시한다"

—그렇군! 만일 내가 그럴듯이 잘 말할수 있었더라면 나도 그렇게 말했을 터이다. 이것은 좋은 신문인데 아호마드!

—잠간 기다려 다음을 들어 보게 "즉 그렇기 때문에—신문은 계속 쓰고 있다— 공산주의는 약소 국가들에 있어서는 부단한 위험으로 된다"

—어떤 위험성이?! 여보게 친구 자네는 무슨 엉터리를 말하나 좋은 신문에 그러한 나쁜 생각이 있을리 있나 그러면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위험한 곳에 있단 말인가?

—만일 신문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지

—에이 참! 내가 그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으면 아호마드!

—쎄이드 아세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잘 살게 되면 미국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안을느끼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 하네.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네 아호마드 그런데 과연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위험이 위협하고 있을까?

—응 만일 우리가 좀더 잘 살게 되면 그들의 리익들은 좀더 적어 질것이라는 그 위험 뿐일세 나는 이렇게 생각 하네

—그것이 만일 공산주의 위험으로 불리운다면 아호마드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네 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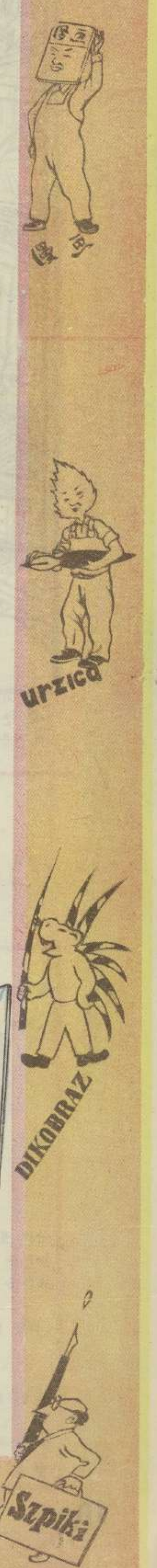
—그렇네

—그러니까 이 신문은 거짓을 말했군 결국 이것은 나쁜 신문이다. 아호마드

—자네 생각이 옳네. 쎄이드 —그러면 신문을 찢어 버리게

브•알렉산드르 작 (한 동 신 역)

— 끄로꼬질5호에서전재 —



게오르그•월째 그림
독일 풍자 만화잡지 아이렌스삐겔 1955, 3호에서 전재

본 정부의 제 1봄(현재 교통상) 이 말하기를 "우리는 머지않아 불란서에 대하여 오늘과는 다른 말로써 말하게 될것이다"

감 유 생 그림
중국 "만화" 잡지 1954, 46호에서 전재

1. 전중국의 총인구수는 6억 1백 91만 2천 3백 71인이다 이는 중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1953년 6월 30일 24시 전면적 조사에서 얻은 정확한 인구 숫자이다
2. 1953년 전중국 공, 농업 총 생산 지수중 현대공업이 31%를 차지 하였다 (1952년은 28%)
현대공업이 국민 경제 중에서, 비중이 증가되였다는 것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향하여 매진하고 있는 일보로 되는것이다

—동무! 어떤 장면을 포착했소?
—저 엄청난 인구와 왕성한 재물을!

유야 무야한 존재

—동무, 직맹 사무실이 어데 있습니까?
—사람 출입이 전혀 없는 저 문으로만 들어가시요

백인균 그림

직맹 사업은 대중을 떠나 있을수 없건만 일부 기업소 직맹에서는 군중과의 접촉을 하지 않으므로써 군중으로부터 유리된 채 사무실 안에서 틀만 차리고 있다

틈만 주면 낙자 없겠는데……

적의 간첩들은 우리 국가기관에 기어들어 오려고 항상 노리고 있으며 해이성과 틈 서리만 찾아단이고 있다

박승히 그림

『하루사리』

—여보게 한잔 마시니 만사가 태평일세 그래
—좋지! 월급을 마신길에 2차는 어떤가?

—새책들이 많이 왔는데 동무는 안 사세요?
—이쫌 됐소… 좀 돌려 주시구려…

원광수 그림

—평북 창성 산림 경영소에서는 모목의 가식작업의 시기를 노치고 뒤 늦게 돌격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땅이 얼었다 그래 습기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가식해서 수 10만 본의 이깔나무 모목이 몽땅 죽어 버렸다

돌격에서 오는 희생물

돌격 호령은 높았었는데

사망 진단에 바쁘구나

송용남 그림

또 하나의 결함

—여보, 여보, 이 급한 화물을 실어주시요
—그런 명령을 받은 일 없으니 집결 소에 두시요

백인균 그림

일부 철도 일꾼들은 선진적 수송방법인 "집결수송안"을 무계획 적으로 자기 본위로 적용하므로써 공차는 빈번히 달리면서도 시급한 화물들을 집결처에 쌓아 두기만 하여 각부문에 걸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목자—함남도 인민회의 지방산업 관리부 부부장)

공명심? 성급징?

황해북도 지방산업관리부 산하 사리원 종합공장의 통계는 언제나 40일간 미리 앞당겨 보고하고 있다.

콩이 소금물에 잠기는 날이면 곧 보고서를 꾸며 다음달의 생산실적으로 도에 보고 하군한다.

된장 간장을 필요로하는 식료품 상점들에서는 도 지방 산업부와 련계하여 차를몰고 인수하려가면 껍질이 뿔어서 너실 너실한 서른 콩알들이 뿌연 소금물에 잠겨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보고하는 지배인 김신 북동무는

『언제되여도 제놈이 된장이 안되고 견디어 낼것 같소? [예견성] 있게 사업하자면 다 그럴수 있소』하면서 마치도 자기 사업이 예견성있게 잘 된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된장을 실어 가야할 자동차가 도착한데 대해서는

『때도 모르고 일찌기 왔다』고 짜증을 내고 있다.

"버림받은 민주선전실"

성천군 대양리 민주선전실은 간판은 으젓이 붙어 있으나 안은 텅 빈 창고와 같다.

난로와 온돌방은 물론 의자와 깔것도 없으며 포어 한장 붙어있지 않은가 하면 문화사업이라고는 계획조차 세웠는지 의심할 정도다.

그리하여 대양리 농민들의 회합장소는 7리나 떠려진 인민학교 교실로 정해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리민중에는 7리 고개를 왕복할 일이 고되여 아여 출석을 단념하는 현상이 있으니 이런 조건을 두고야 어째 정치 선전 사업의 성과를 기대 하겠는가?

하루 속히 민주선전실을 수리 완비하여 리민의 학교와 위안의 장소로 만들것이다.

계절을 모르는 공급일꾼

3월에 들어서자 룡암포 수산사업소에는 로동보호 물자가 도착되였다.

파동용 솜 양복도 받지 못했던만큼 로동자들은 너무도 반가워 『흰 광목이면 적삼을 만들고 남색 천이면 치마를 만들 것이라』고 멥시있게 단장할 봄 준비의 이야기로써 꽃피였다.

그러나 도착된것은 작년도에 배정된 솜동복이 였다. 너무도 어이없는 일에 종업원들은

『솜동복 입구 꽃 구경하란 말인가?』

『1955년도의 파동용 준비를 미리 해 주는 결세』이런 말들을 하며 웃는것이 였다.

수산성 공급 일꾼들이여! 근로자들에게 베푸는 당과 정부의 배려에 관심을 높이라. 원광수 삽화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전쟁 재 도발의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선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사명을 가진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 제한하며 그를 해체하려는 일련의 범죄적 행동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범죄적인 흉책

미 제—군수품 등쌀에 질식 될 지경이니 빨리 빨리 서두러라

리승만—네, 네, 알어 채렸습니다 그놈의 중립국 감독 위원회 말이죠?

미 제—그래, 그래, 곧 소동을 이르켜라

태인균 그림

권태증 때문에

일본에 있는 미 점령자들은 미치광이 처럼 답답해 하고 있다. 아이들을 업은 일본 녀자들이 모여드는 경마에는 실증이 났으며 날창과 화기를 사용하는 백병전은 싫어졌다. 그러나 군복을 입은 유모리스트들은 역시 락심 하지 않고 새로운 심심 푸리들을 창안해 내고있다

교또 쯔신 통신사가 전하고 있는바와 같이 합중국의 청년들은 최근에 련습용 수류탄의 지뢰 특성 시험을 오락으로 할것을 결정했다 늦은 저녁 기동 련습에서 돌아 오는 길에 동경 중앙 거리를 타고 건느면서 그들은 몇개의 그러한 수류탄들을 구두상점 "아사히도" 의 화려한 진렬장으로 내 던졌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고 바로 이것이 구경 꺼리이다! 귀가 터질듯한 수류탄의 폭발과 미국 건달군들의 앙천 대소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들과 맵씨 있는 구두 장화들이 뒤섞여 통행인들에게 들씌워졌다.

지방 경찰 관리국장은 미국 군사당국을 방문하여 목적 달성에 대한 별다른 희망도 없이 군대들에게 폭발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 할것을 요청했다. 아마 장관은 이 원을 풀어 줄 것을 약속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명백 하다. 즉 만일 지방 정권 대표자들이 다만 온순한 청원자로써만 진출 한다면 미군 폭군 병사들의 술로강은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던지 간에 즐겁게 놀라! 라는.

끄로꼬질 3호에서 전재 (한동신 역)

언론 자유에 대한「담보」

남조선「민주국민당」계통에서 경영하는「동아 일보」는 민주주의의 초보적 권리마저 유린하는 리승만의 파쑈적 폭거에 의하여 3월 17일 정간 되였다

최영근 그림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전주에서 그리 멀지않은 김상칠이 사는 마을은 2백호가 넘건만.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야 빚만 더욱 늘어가며 굶기를 고나 빼우듯 하니 고향을 떠나 유리 방랑의 길에 나선 사람이 자꾸만 늘어간다. 혹시나 올해 농사를 해 놓면! 하며 농사할 념량도 마련 없이 굶으면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결국은 앉어 굶어 죽느니 보다 또 고향과 농토를 버리게 된다.

그래도 김상칠은 시래기 국과 겨 죽으로 버티여 왔다. 김상칠은 생각 할수록 백성을 못 살게만 하며 나라 팔아먹는데 환장을 한 리승만을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겠지만. 주먹은 가까운데 부터 간다는 말 처럼 한 마을의 최대지부터 미워 견딜수 없다. 이 최대지는 면장질을 하는것과 둘째 아들이 괴뢰군 련대장인데나 등을 기대고는 마을의 모든것을 제것인것처럼 행패질을 했다. 로력이 부족하면 테로단과 경찰을 시켜 마을사람들을 끌어내며 큰아들을 시켜 고리대금을 하여 기한만 되면 떼꺼덕 차압을 붙치군했다. 이것만 해도 미운데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루 속히 떠나기를 충동질 했다. 그래야 떠나는 사람들이 붙치든 논을 제것으로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마을 앞에 있는 최대지의 논은 몇 배로 커졌다.

한번은 보다못해 김상칠이 최대지에게 덤볐다.

『불 난데 부채질두 분수가 있지. 그래 떠나라구 추석일것 뭐 있단말요』 이렇게 쏘아주어 얼어맞기는 김상칠이였지만 경찰지서에 붙들려가 싫전「곤장」질을 당하고 사흘이나 구류 살이를 했었다. 김상칠은 이웃집 몇 사람과 단단히 결심을 하고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면서 봄이 오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봄이 오기 전에 마을 앞 벌판을 비행장으로 만든다는것이 발표되였다. 김상칠과 이웃집 10여호는 벌판 가운데 있는만큼 가옥까지 허물게 되는 판이다. 이날밤 김상칠은 안해와 함께 통곡을 하다 싶이 했다. 고향을 지키고 싶은 정. 농사를 더 한번 짓고 싶어하는 죄 없는 욕심이 이렇게도 짓밟혀야 한단 말인가 북반부에서는 찬란한 건설이 한창이라는데 이놈의 세상은 전쟁 소동에 미처 날뛰는것이 다시금 가증스러웠다.

마을사람들은 최대지가 범 잡은 격이 되였다고 생각했는데. 최대지는 도리어 신바람이 나게 전주 출입을 하여 막대한 운동비를 써가면서 비행장 공사 청부를 맡아왔다. 그의 사촌아우를 면장에 앉히고 최대지는 인부를 모집하기에 날뛰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품팔이에 귀를 기우리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김상칠과 몇 사람은 철거 기일이 넘도록 그냥 버티였다. 최대지와 경찰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집을 헐지 않었는데 하루는 미군 녀석들이 와서 다짜고짜로 불을 질러 버리고 말았다. 김상칠은 눈깔이 뒤집히려는 중에 자기도 이상하리만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상칠이 고향을 떠나는 날 하필 다리목에서 최대지를 만났다.

『김서방. 영영 고향을 떠나네그려』

그러나 김상칠은 딴 곳을 보면서 다구지고도 맑은 음성으로

『고향에 돌아올 때가 꼭 있지. 있어. 허지만…』이렇게 똑똑히 말하고 김상칠은 『그때는 너야말루 영영 고향을 떠나는 판이야』 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로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세상이란 것을 생각하는 것이였다.

— 리 석 —

괴뢰의 „레뷰—" 사사오입

권세를 얻으려면『사바, 사바』

독가비 감투에 감지득지

상전의 호령에『북진』『북진』

인민의 목소리에 혼비백산

박승히 그림

Убирайся вон! Убирайся вон!

원자전쟁 반대!

무덤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와 같이 「협의럽장」의 초석의 하나로 되는 타국령토상의 기지들은 비록 그것들의 존재가 국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여 전쟁의 위험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나 역시 미국 전략가들의 타산의 견지로부터 본다할지라도 아무런 좋은것도 약속하지 않는 파산된 요인으로 된다
—(쏘련 륙군소장 에프•이싸에브)—

—죽어도 이걸 한대 피우고 죽지!

박승히 그림

평화의 선언

평화! 오직 이것만을 념원하는
이 땅의 착한 사람들이 파도처럼 모이거니
어린 손자의 손목 잡고
황급히 오시는 할머니 한분

『어데에서 서명하오?』
날카롭고도 묵중한 할머니의 음성
모든 사람 길을 알뜰히 비켜주며
손을 이끌어 앞으로 앞으로 안내한다

새빨간 필육 씌운 서명대 앞에 나선 할머니
『사람 백정놈들 원자란을 쓰겠다구?』
비장한 얼굴에 폐을 잡은 손 부르르 떨거니
사람들 입술을 깨물며 평화의 원쑤를 노리는듯

야수들의 총칼 앞에 생때장 당한
외 아들의 참혹한 최후와
쏟아지는 불비속에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영영 이 땅위에 없기위해

즐겁게 노래하며 뛰여노는
어린 손자의 행복한 시간이
다시는 잿속에 묻히지 않기위해
뜨거운 념원으로 할머니 서명한다

이 바로 조선의 마음
수억만 심장들과 함께 있는것
평화를 틀어잡은 큰 힘으로 뭉쳐
전쟁광들의 망상은 마사지리라

원자력은 분명 우리의것
다만 평화를 이룩하는 위대한 문명이거니
흉악한 살인마들의 발악을 짓부시며
우리 모다 할머니와함께 엄숙히 서명한다

—석 팔 봉—

등 치고 간 뺍아 먹는자들

리영춘 그림

Долой атомную войну!

새말은 없다

적반하장이란 말은 오늘의 미제에 짜장 맞는다. 아세아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침략 세력에 항거하여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회합을 가지게 되니 이것을 「파괴활동」이라 하여 미제는 방해공작에 광분한다.

그래 덜레스는 소위 「파괴행동」을 반대하려 2월에 아세아 려행을 떠났었다. 방코크에 추종국가 대표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파괴활동」의 반대 수단으로 「동남 아세아 동맹 기구」니 「중앙 돌격대」의 태평양 집결이니 하며 가진 위협을 다했으나 「아세아 제국회의」와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 등 아세아 나라들끼리의 회의의 인끼는 날로올라만 갔다. 회의 참가를 막으려 딸라와 원자탄의 광고를 메고 각국을 력방했으나 말의 본전도 찾지 못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에 미국의 괴뢰정권을 세우려고 작년에 과괴행동을 용의 주도하게 시작했다가 인도네시아의 인민 앞에 분쇄되고 만 기억이 아직도 새로웁다. 하필 인도의 뉴델리 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도시 야자수의 록음이 깃든 반둥 에서 회의들이 열린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기막힌 일이다.

이런 만큼 덜레스의 과괴 공작도 집요했다. 그러나 덜레스는 의기 초침해 가지고 빈 손으로 귀국했다. 그의 귀국과 함께 그의 한 패거리인 상원 외교의원 머스까지도 덜레스가 위협을 란발함은 불행한 일이라 했으며.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 역시 미제가 반룽 회의에서 피고로서 규탄되리라고 썼다. 이 회의에대한 과괴 공작을 더 강하게 계속하려고 골통을 짜아 내던 덜레스는 신문을 박박 찢어 버렸다. 담배를 든 덜레스의 손은 제분에 아직도 떨렸다. 그는 마주 앉은 국무장관보에게 짜증을 냈다.

『그놈의 반둥회의를 과괴할수 없을까』

『앞으론 좀더 새론 선전방법이 필요하죠. 참신한건 새론 효력을주니까요』

『요전 말한「경제원조」의 대공세를 취하는것이 새것 아니요?』

덜레스는 의기양양하다가 국무장관보가 『그건 제2의 마샬 원조안이라는 비난을 받을 지도 모르죠』하는 말에 부화통이터졌다.

『그건 새것이 아니란 말요?』 덜레스는 소리를 꽥 질렀다. 그렇다. 그들에게 새 말은 있을 수 없다. 선량한 인민들의 귀에 담길 새 말이란 자신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니까. —우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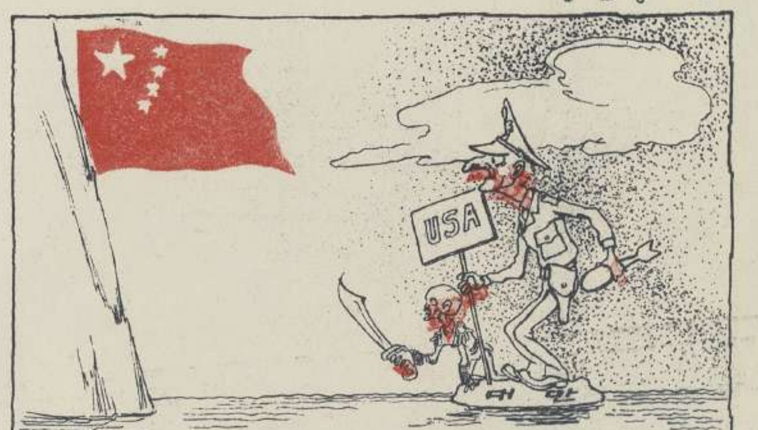
누가 뒤떠러지고 있는가

"쏘련 사람들은 수소 무기 생산에서 뒤떠러진 것이 쏘련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이르렀다" (브•므•몰로또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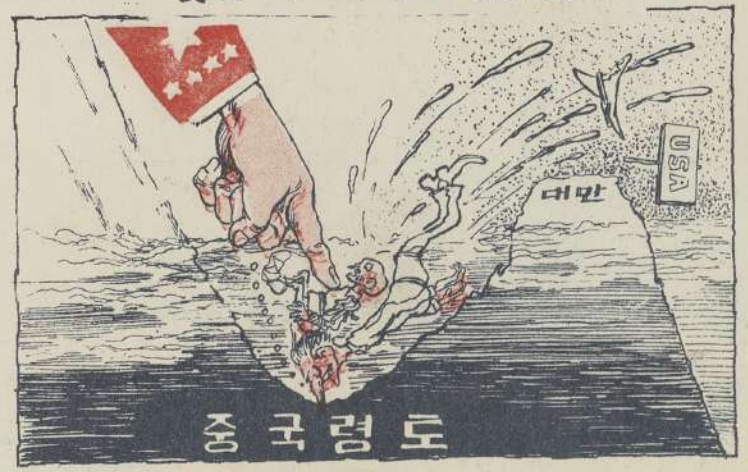
장 진 광 그림

사람의 힘은 무엇보다도 강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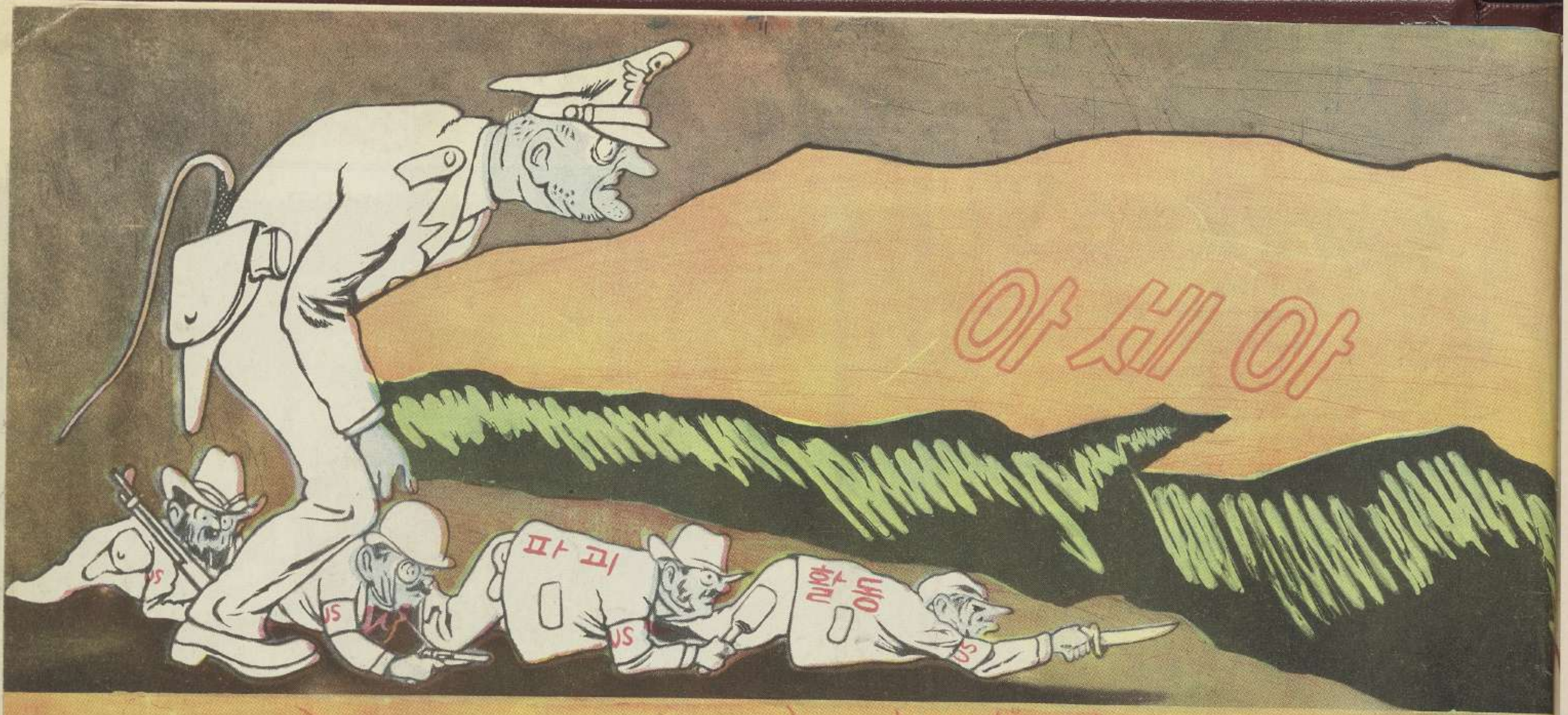
"비록 원자 무기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어느 한 종류의 무기만 가지고서는 현대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는 것을 항상 념두에 둘것이 필요하다"
—(쏘련 륙군소장 에프• 이싸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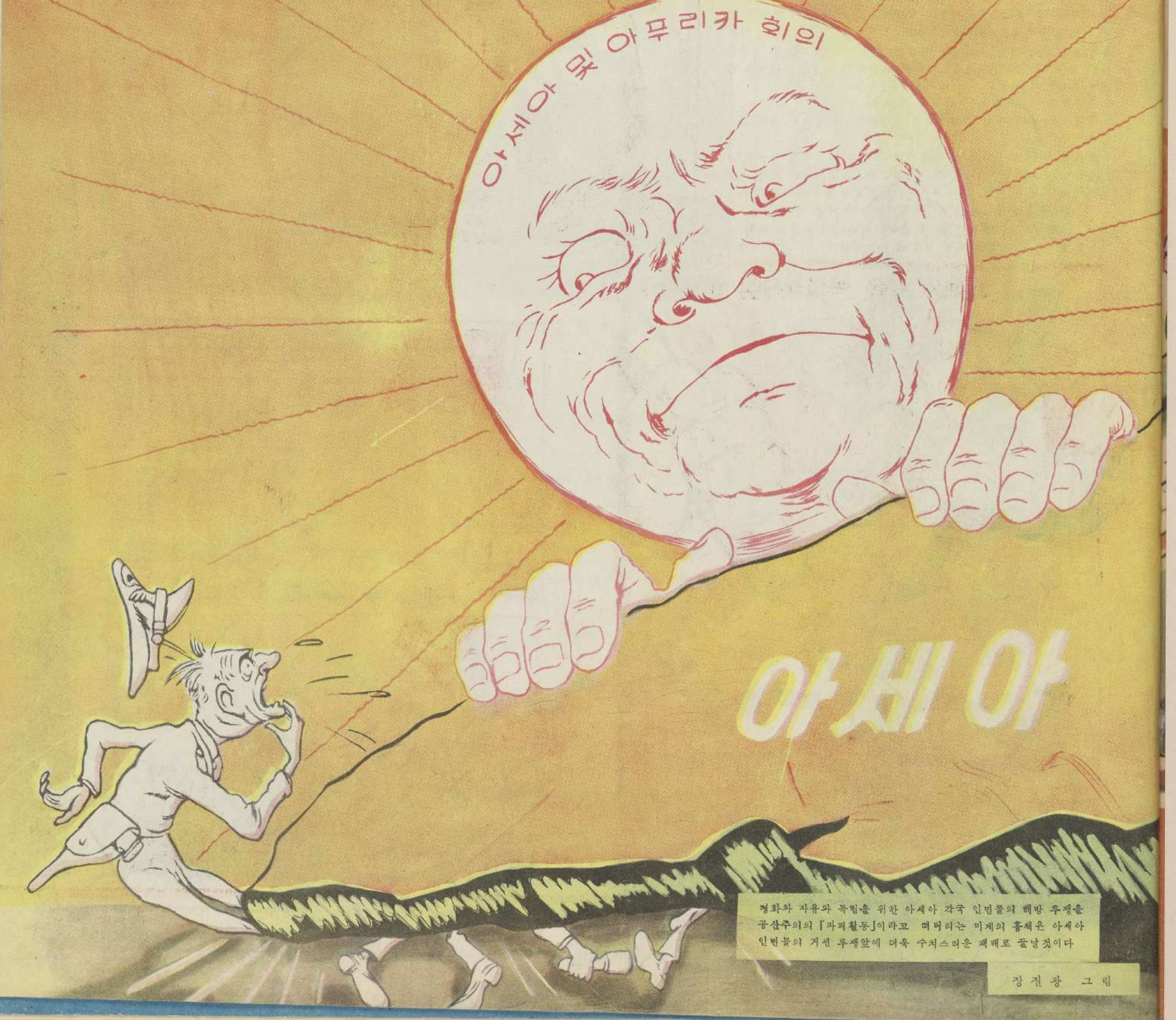
맛을 꼭 봐야만 하겠는가



책임주필 장진광
발행소 활살(시사만화잡지)사
인쇄소 국립종합인쇄소
인쇄 1955, 4, 1
발행 1955, 4, 15
ㄱ…30058
값 (90원)



아세아의 햇발은 퍼진다



평화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아세아 각국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공산주의의 「파괴활동」이라고 떠버리는 미제의 흉책은 아세아 인민들의 거센 투쟁앞에 더욱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날것이다

장진광 그림